



김진숙 홈리스 교육재단



The Jean Kim Foundation for the Homeless Education

PO Box 1835, Lynnwood, WA. 98046 김진숙 목사 (425-563-3006) Pastorinpurple1935@gmail.com

재단설립동기와 과정: 김진숙 목사는 거리선교의 스승이시고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한국에서는 1960 년대에 과부, 고아, 나환자촌 자활사역을 감당한 후 미국 이민생활 50 여 년 간도 과거에 자신이 겪은 파란만장한 생의 아픔 처럼 빈곤과 질병으로 홈리스계열에 서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동안 2015 년에 8 순을 맞게 되었다. 김목사는 8 순생일 선물로 가족, 친척, 친지, 친구들이 준 후원금 전액을 종자돈으로 하여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 홈리스 교육재단을 출범시켰다. 김목사 자신이 이나라에 와서 받은 많은 축복 위에 석사, 박사교육의 축복까지를 모든 교육과정에서 도중하차하고 홈리스가 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교육만이 홈리스 근절의 기본요소라고 믿어서였다.

이제 김진숙 목사는 폐경색이라는 병을 얻어 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있다. 그러나 그녀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은 한온스의 에너지까지를 이 보람있는 사역을 반석위에 남기는 일을 위해 쏟는다. 매일 길거리로 그들을 찾아 공부하라고 외치니 그의 간절한 목소리는 홈리스들과 하나님 귀에 까지 메아리쳐서 오래전에 공부를 중단한 20-60 대의 많은 홈리스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구름처럼 몰려와 대학에 진학한다. 절망의 먹구름으로 덮였던 홈리스들 얼굴이 반짝 반짝 빛난다. 그들의 축 쳐졌던 어깨가 펴진다. 만사에 속수무책이던 그들이 가정교사와 자원봉사자로 변한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어 지역사회의 많은 인재들을 이사로, 자원봉사자로 쏟아부으신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밖에서 자고 학교에 등교하는 일 그 자체가 고난이다. 무엇보다도 학위를 끝내고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거처할 곳이 필요한데 방을 얻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 그들에게는 사는 일 자체가 전쟁이다; 그들은 매일 건강문제, 경제문제와 싸워야 한다; 자비심이라곤 볼 수 없는 경찰과 법령과 싸워야 한다; 과거의 교통위반, 음주, 금연, 주차위반으로 받은 수많은 딱지와 벌금과 싸워야 한다; 과거의 감금 경력과 빛이랑 장애물들과 싸워야한다; 임시숙소, 사회복지 체제, 저소득주택 정책과도 싸워야 한다; 매일밤 잠자리, 주차자리, 화장실문제, 목욕문제등과도 싸워야 한다; 술을 마시고 약물을 남용하고 학교를 도중하차 하고싶은 유혹과도 싸워야 한다; 겨울의 추운 날씨와도 싸워야 하고, 길에 만연한 절도, 강도, 폭행과도 싸워야 한다; 그뿐인가! 자신들의 게으르고 자유분방한, 혼란스럽고 제재가 없이 무질서한 생활습관과도 싸워야 한다; 자신들의 건망증,무책임, 일시/만성 욕신적, 정서적 장애, 중독, 나쁜 습관과도 싸워야 한다; 약속과 시간을 엄수하고, 수업에 규칙적으로 출석하고, 과제를 시간 내에 끝 마치는 일 모두가 힘든 싸움이다. 먹걸이를 위해 싸우고 사랑과 인정 받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싸워야 한다; 실망과 절망과도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매일 일과가 싸움이다.

그러므로 김진숙 목사는 이들에게 연방정부의 장학금을 얻어주고 학교에 등록시켜놓고 위의 수많은 문제해결을 도우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준다. 김목사는 자신의 생명이 다한 후에도 이 사역이 굳건히 서서 계속되도록 한편으로는 이사진을 훈련하고, 홈리스중에 동료멘토들을 훈련하여 키운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금운동에 들어간다. 김목사 처럼 사회사업과 정신질환 상담 명허를 소지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담은 전문인을 채용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김목사는 십시일반으로 모든 사람, 온 사회와 교회가 참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끌어가는 지역사회 사역으로 키우자고 범 사회와 교회에 호소한다.

책 출판: 아름다운동행'출판사는 홀리스들을 섬기며 살아온 김목사의 파란만장한 생의이야기를 그녀의 홀리스 사역과 엮어서 보랏빛 속의 희망 이란 제목으로 2017년 1월에 한권의 책으로 내놓는다. 이 책의 수익금 전액은 홀리스 교육 사역으로 돌아간다. 책을 구입하시는 분은 본 사역의 후원자 계열에 서게된다. 후원 하실 분이나 책을 주문하실 분들은 수표를 Jean Kim Foundation 으로 쓰고 PO Box 1835, Lynnwood, WA. 98046 로 우송하면 된다. 책 값은 권당 \$20.00 이이다. 원하시는 분들은 수표에 책값이라고 써야한다. 모든 후원금은 세금공제가 된다. 본 홀리스 교육사역을 후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과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소나기 처럼 내리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목적: 극빈자이거나 홀리스 어른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학위와 고용기술을 습득하고 직장과 주택을 얻어 가난과 홀리스생활을 청산하고 생산적인 시민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인도하고 힘을 실어주며 중재함이다. 미국과 세계의 가난퇴치의 모델이 되고자 함이다.

대상 중,고등학교, 대학중퇴자로 공부를 계속하기를 열망하는자, 연방정부의 규정에 해당하는 극빈자, 현재 홀리스, 미래 홀리스가 될 가능성을 지닌 워싱턴 주의 시민들. 이들은 나라의 극빈자 혜택과 연방정부의 교육비 보조 대상들이다.

교육재단이 제공하는 4 가지 기회: 1) 대학진학. 2) 대학에 진학 못할 사람들을 위한 직업훈련 (Workforce 와 파트너 한다. 3) 위의 두 가지를 선택 못할 사람들은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과 파트너로 좀더 낮은 급의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4) 위의 3 가지를 못하고 글을 읽지도 쓰기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문맹퇴치 과정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 재단의 필요:

- | | |
|----------------------------|--------------------------|
| 1. 교육재단과 파트너 할 개인이나 기관 필요 | 2. 사회사업가를 채용하기 위한 기금 필요. |
| 3. 사역장소 필요 | 4. 자원봉사 멘토와 가정교사 필요 |
| 5. 재단의 웹사이트를 제작, 관리할 자원봉사자 | 6. 자원봉사자 사무직원 필요 |
| 7. 홍보자료 프린트에 도움을 필요 | 7. 홀리스들을 위한 모빌리티 후원자. |

홀리스 학생들의 필요:

- | | |
|------------------------|--------------------------------|
| 1. 공부하는 동안 묵을 주택 필요. | 2. 년중 임시쉼터 필요 (남,녀 별도) |
| 3. 차에 자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곳 | 4. 공부하는 동안 텐트치고 잘 수 있는 장소 |
| 5. 컴퓨터 (Laptop) | 6. 손전화 (Internet, Text 할 수 있는) |

- | | |
|----------------------------|----------------------------|
| 7. 전화비 지불 도움필요 | 8. 창고 |
| 9. 버스카드. | 10. 샤워와 빨래 ticket |
| 11. 응급 모텔과 자동차 깨스 voucher. | 12. 자전거/자전거 주차할 곳 |
| 13. 집세 보증금과 집세 도움. | 14. 자동차 수리, 보험, Tab 도움 |
| 15. 가끔 교통편 제공의 도움 필요 | 16. 텐트, sleeping bag, mat. |

교육재단의 파트너: 홈리스 자신들, 관심있는 시민들, 초급/정규대학, 종교단체/교회, 사회복지기관, 자금 source.

고등학교 중퇴는 고용의 꿈을 깨고 빈곤에서 벗어날 소망을 묘연하게 한다. 홈리스 어른들의 반은 월수입 \$300 미만이다. 교육의 부족은 생활임금을 받을 고용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 고등학교 중퇴와 빈곤, 문맹, 교육의 부족은 개인이나 가족의 홈리스되는 일과 연관이 깊다 (Seattle-King County Committee to End Homelessness).

모든 후원금은 세금공제 된다. 김진숙 홈리스 교육재단은 주정부에 등록되고, 연방정부의 세금공제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이다.

김진숙 교육재단의 이사진: 김진숙 박사 (이사장); Jules Butler 박사 (변호사); Gary Cook (목사, 전 미국장로교 총회 기아프로그램 총무); 공혜련씨 (회계, 부동산 중매인); Ted Haase (Seattle Pacific University 의 경제분과 과장); 정득실 (목사, 등지선교회 이사장); 이경호 (목사; 타코마 제이 장로교회 목사, 등지선교회 실행총무); Larry Nilson (은퇴, 전직교사); 옥현희, (서기, 은퇴 워싱턴 주 고용국 직원); Sharon Tomiko Santos (워싱턴주 국회의원); Sheryl Stohs 박사, 연방 환경국 과장; Shirley Sutton (Lynnwood 시의 시의원)